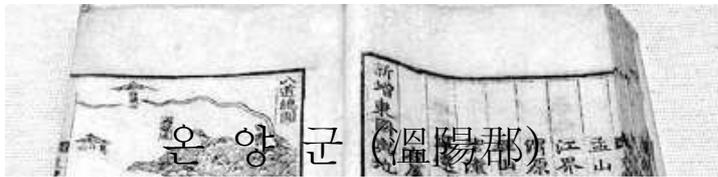


제4편 온 양 군 지

(신증 동국여지승람)

우리 고장은 온양 아산이 온양군, 아산현, 신창현으로 나누어져 왔는데 세종대왕에 의하여 온양이란 명칭을 하사 받았고, 온천이란 특성을 감안하여 현편제를 군편제로 격상하여 존 4품인 온양군수가 군정을 이끌고 있을 때 당시의 온양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게 기록되어 있는 신증 동국여지승람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동쪽으로 천안군(天安郡) 경계까지 22리이요, 남쪽으로는 예산현(禮山縣) 경계까지 26리이며, 서쪽으로는 신창현(新昌縣) 경계까지 13리이며, 북쪽으로는 아산현(牙山縣) 경계까지 13리이고, 서울과의 거리는 2백 51리이다.

건치연혁 본래 백제의 탕정군(湯井郡)이었는데, 신라 문무왕(文武王) 때에, 주(州)로 승격시켜 총관(摠管)을 두었다가, 뒤에 주를 폐하고 군으로 하였고, 고려 초기에는 온수군(溫水郡)으로 고쳤으며, 현종(顯宗) 9년에 천안부(天安府)로 붙였고, 명종(明宗) 2년에는 감무(監務)를 두었던 것을, 본조 태종 14년에 신창(新昌)과 병합하여 온창(溫昌)이라 칭호를 고쳤더니, 16년에 이를 다시 쪼개여 온수현(溫水縣)을 설치하였는데, 세종 24년에 임금이 온천에 거둥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군으로 승격시켰다.

관 원 군수·훈도 : 각 1명.

군 명 탕정(湯井)·온수(溫水)·온창(溫昌)·온천(溫泉)

성 씨 본군 정(鄭)·이(李)·방(方)·강(康)·윤(尹) : 촌에 있다.

산 천 연산(然山) : 읍 북쪽 2리 지점에 있는 이 고을 진산(鎭山)이다. 배방산(排方山) : 읍 동쪽 8리 지점에 있는데, 산마루에 네 개의 봉우리가 똑같이 대치하고 있어 가장 기관(奇觀)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속칭 과안봉(過雁峰)이라 한다. 서달산(西達山) : 읍 남쪽 3리 지점에 있다. 송악산(松岳山) : 읍 남쪽 23리 지점에 있다. 화산(華山) : 읍 남쪽 11리 지점에 있다. 거차라산(巨次羅山)·월라산(月羅山) : 모두 읍 서쪽 7리 지점에 있다. 광덕산(廣德山) : 읍 서남쪽 13리 지점에 있다. 가문현(佳文峴) : 읍 남쪽 30리 지점에 있다. 포천(布川) : 읍 동쪽 7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천안군 풍세동(豐世洞)에서 나와 신창현의 견포(犬浦)로 흘러 들어간다. 가리천(加里川) : 읍 동북쪽 1리 지점에 있다. 그 근원이 셋이 있으니, 하나는 읍 서쪽 전족령(全足嶺)에서 나오고, 하나는 가문현에서 나오며, 다른 하나는 읍 동쪽 잉읍현(仍邑縣)에서 나오는데, 신창현의

견포로 흘러 들어간다. 온천(溫泉) : 읍 서쪽 7리 지점에 있다. 질병 치료에 효험이 있어 우리 태조·세종·세조가 일찍이 이곳에 거둥하여 머무르면서 목욕하였는데, 유숙한 어실(御室)이 있다. 신정(神井) : 임원준(任元濬)의 기(記)에, “천순(天順)” 8년 봄 2월에 우리 주상(主上) 승천체도 열문영무 전하(承天體道烈文英武殿下)께서 남쪽으로 충청도를 순수(巡狩)하시면서 속리산(俗離山) 복천사(福泉寺)에 거둥하사 혜각존자(慧覺尊者)를 만나 보시고, 그 뒤 3월초 1일에 온양군의 온양(溫湯)에 거가를 머무르셨다. 그러한 지 4일만에 신천(神泉)이 홀연 솟아올라 뜰에 가득히 흘러 왔다. 성상께서 크게 기이하게 여기시고 명하여, “그곳을 파니, 물이 철철 넘쳐 나오는데 그 차기는 눈과 같고, 그 맑기는 거울 같았으며, 맛은 달고도 짜릿하였고, 성질이 부드럽고도 고왔다. 명하여 수종한 재상들에게 반포해 보이시니, 서로 돌아보며 놀라고 기뻐하지 않은 자가 없었고, 또 서로 이르기를, ‘옛날에 없던 것이 지금 새로 생기어 탕정(湯井)의 물은 따뜻하고 이 우물은 차니, 이는 실로 상서의 발로이다.’하여, 8도에서 표문[表]을 올려 하례 칭송하니, 드디어 주필 신정(駐蹕神井)이란 이름을 내렸다.”하였다.

토 산 옷칠[漆]·대추[棗]·감(柿)·복령(茯苓).

성 광 배방산성(排方山城) : 돌로 쌓은 성으로 주위가 3천 3백 13척에, 높이는 13척이며, 그 높이는 13척이며, 그 안에 우물 두 개가 있고, 군창(軍倉)이 있다.

누 정 대청루(大靑樓) : 객관 동쪽에 있다. 군수 최린(崔潑)이 중건한 것이다. 이숙함(李淑臧)이 빙설루(冰雪樓)라 이름을 고치고 지은 기문이 있다.

학 교 향교 : 읍 서쪽 1리 지점에 있다.

역 원 시흥역(詩興驛) : 옛날에는 이흥역(理興驛)이라 호칭하였는데, 읍남쪽 8리 지점에 있으며, 승(丞)이 있다. 본도에 속역(屬驛)이 일곱 개가 있으니 창덕(昌德)·일흥(日興)·급천(汲泉)·순성(順成)·흥세(興世)·장시(長時)·화천(花川)이다. ○승(丞) 1명이 있다. 애원(艾院) : 읍 동쪽 18리 지점에 있다. 신원(新院) : 읍 동쪽 2리 지점에 있다. 혹은 태산원(泰山院)이라고도 일컫는다. 망빈원(望賓院) : 읍 동쪽 13리 지점에 있다. 용두원(龍頭院) : 읍 남쪽 24리 지점에 있다. 송현원(松峴院) : 읍 동쪽 7리 지점에 있다. 오산원(烏山院) : 읍 동쪽 10리 지점에 있다. 임반원(任潘院) : 읍 동쪽 20리 지점에 있다.

불 우 과안사(過雁寺)·기린사(麒麟寺)·남산사(南山寺) : 모두 서달산에 있다. 목사(木寺) : 배방산에 있다. 외암(隈菴)·현우사(玄雨寺)·중암(中菴) : 모두 화산(華山)에 있다. 석암사(石菴寺) : 송악산(松岳山)에 있다.

사 묘 사직단 : 읍 서쪽에 있다. 문묘 : 향교에 있다. 성황사 : 연산(然山)에 있다. ○ 고려 고종(高宗) 23년에 몽고(蒙古)의 군사가 와서 성읍을 포위하였는데, 아전 현여(玄呂)등이 성문을 열고 나가 싸워 크게 격파하고, 적의 머리 2급(級)을 베었고, 화살과 돌에 맞아 죽은 자가 2백여 명이나 되었으며, 노획한 군기도 매우 많았다. 왕이 성황신이 음으로 도운 공이 있었다하여 신호(神號)를 더 봉하였다. 여단 : 읍 북쪽에 있다.

고 적 남산(南山) : 고려 태조(太祖)가 유검필(庾黔弼)에게 명하여 양정군(陽井郡)에 성을 쌓았다. 이때 후백제의 장수 김훤(金萱)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청주(靑州)를 침공하였다. 하루는 검필이 본군의 남산에 올라 앉아서 즐기고 있었는데, 꿈에 한 거대한 사람이 말하기를, “내일 서원(西原)에 반드시 변란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속히 가서 구원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검필이 놀라 깨어 청주로 달려가서 <후백제의 군사와> 더불어 싸워 격퇴하고, 독기령(禿岐嶺)까지 추격하여 죽이고 포로한 것이 3백여 명이나 되었다. 개흥부곡(開興部曲) : 읍 서쪽 14리 지점에 있다. 상곡부곡(上谷部谷) : 읍 남쪽 13리 지점에 있다. 목천부곡(木村部曲) : 읍 동쪽 10리 지점에 있다. 박산부곡(朴山部曲) : 읍 남쪽 12리 지점에 있다. 독촌부곡(禿村部曲) : 읍 북쪽 10리 지점에 있다. 묘산부곡(卯山部曲) : 읍 동쪽 10리 지점에 있다.

명 환 **고 려** 이성(李晟) : 충렬왕(忠烈王) 때에 과거에 올라 감무(監務)에 뽑혀 임명되었다.

호 자 **본 조** 맹희도(孟希道) : 효행에 있어 정문을 세워 표창받았다. 신창현(新昌縣) 인물 조항에 자세히 나와 있다.

제 영 필불영천용(臍沸靈泉湧) : 이승손(李承孫)의 시에, “칼칼 영천이 솟아나는 것은, 활활 타는 화덕(火德)이 통함이로다.”하였다. 교전상운합(郊殿祥雲合) : 이숙치(李叔時)의 시에, “들밖의 궁전엔 상서로운 구름이 모여 가득하고, 신령한 샘에는 따뜻한 옥류(玉溜)가 맑구나.”하였다. 행궁비수령(行宮非繡嶺) : 이맹상(李孟常)의 시에, “이 행궁이 수령궁이 아니거니, 대가(大駕) 임행하신 곳 어찌 저 곤명(昆明)땅이라.” 하였다. 봉강토덕형(封疆土德亨) : 박원형(朴元亨)의 시에, 읍호(邑號)를 올리니 천은(天恩)이 무겁고, 겐약을 바로하니 토덕이 형통하는도다. 하였다. 팔영(八詠) : 이숙함(李淑咸)의 시와 및 그 서문(序)에, “내가 산수(山搜), 영숙(永叔)과 같이 온천행궁(溫泉行宮)의 직려(直廬)에 입직하고 있으면서 때로 서하(西河)·고양(高陽)·언양(彦陽)등 여러 상공(相公)과 더불어 왕복 수창(酬唱)하며 스스로 그 호포를 풀고 지냈는데, 영숙이 그 사이에 팔경(八景)의 제목을 얻어, 나에게 먼저 고체시(古體詩)를 지으라 요구하여, 장차 화교(和教)의 장본으로 삼으려 하니, 그야말로 키질 해 까부르면 쪽정리와 겨가 먼저 나가는 법이다. 이를 보는 자 그 나의 광참(狹僭)함을 용서하라.”하였다. 행궁의 성서로운 구름[行殿祥雲] : “봄바람에 어가(御駕)가 호서(湖西)에 거둥하사, 온천 이곳에 깊숙이 어연(御輦)을 머무르셨네. 궁전 위에 애애(靄靄)하게 떠오르는 구름송이, 상서의 광채가 흩어졌다가는 다시 모아든다. 북녘으로 아득하게 봉래궁(蓬萊宮)과 연하여, 성주(聖主)의 효성어린 생각 바라보는 가운데에 있네. 저 구름은 무정한 듯하면서도 도리어 유정한 것이런가. 하물며 다시 비를 주어 전공(田功)을 도우에라.”하였다. ○ 임원준(任元濬)의 시에, “바위 위의 꽃과 시냇가의 버들이 연(輦) 길에 비치니, 온천 한 지역에 봄이 길이 머물렀네. 봉가(鳳駕) 때로 구천(九天)으로 쫓아내려 오시니, 아름답고 이상스런 상서가 모두 함께 모아들었서라. 상서구름 옥옥(郁郁)하게 행궁을 뒤덮으니, 현란(絢爛)한 5색 광채 공중에 떠 있어라. 저 구름 흩어졌다 다시 모여 천지와 사방에 은택증을 알었으니, 만물이 힘입어 사는 공을 우러러 바라노라.”하였다. 영천(靈泉)의 서액(瑞液) : 이숙함의 시에, “화룡(火龍)이 길이 땅밑에 굴을 파서, 샘 길을 열어 놓아 맑은 물 솟아나니, 따뜻한 물 신령한 진액이 사람의

질병을 쾌히 다스려, 해묵은 난치(難治)의 병이 저절로 떠난단다. 세 전하(三殿) 옥탕에 하림하사 옥체의 피로 풀어 흠어실 제, 원활하고 부드러운 약물 마음껏 끼얹으시니, 떠오르는 저 물김은 연기가 아니다. 한 번 씻고 나시면 성수(聖壽) 계산하는 수가치(壽) 더 첨가했느라고, 서왕모(西王母)¹⁾가 보낸 글을 푸른 새(靑鳥)가 전해 온다네.”하였다. ○ 임원준(任元濬)의 시에, “따뜻하게 끓인 물같고 맑기도 한없으니, 불덩이 땅속에 묻혀 때로 물을 솟는다네. 고질(痼疾) 낮게 하여 만 백성을 구제할 뿐 아니라 능히 번뇌(煩惱)도 씻어버려 성체(聖體)도 조호하나니, 구름같이 피어오르고 독 같은 것 피부에서 풀고 흠어버리시니, 화기도 애애(靄靄)하여 상서 연기인 듯 하였어라. 남기신 윤택 나누어서 전답에 물을 대면, 여러 해 풍년든 칭송을 서로 전해들으리라.”하였다. 천주(天廚)의 어선(御膳) 반사(頒賜) : 이숙함의 시에, “행궁(行宮) 궁안에 우리님 주포(廚庖)에는, 바다진미 가득하고 들나물도 가지가지, 날마다 호종한 신료(臣僚)들에게 반포해 내리시니, 팔진(八珍) 낙역부절(絡繹不絕) 중사(中使)의 발걸음도 수고롭다. 또 다시 궁중 향아리의 우로향(雨露香)을 내리시며, 십분(十分) 취하라는 권고까지 있어 취광(醉狂)이 되어서는, 다 같이 이르기들이 홍은(鴻恩) 값을 길없으니, 다만 축원하건대 저 능강(陵岡) 같이 오래오래 수하소서.” 하였다. ○ 임원준의 시에, “타봉(駝峰) 낙타 등에 산봉우리 같이 곳은 살덩이. 진이로 일컫는다.) 용장(熊掌)이 천주(天廚)에 가득하니, 심상한 고기와 소채 어찌 이에 비하랴. 은총 입어 나날이 팔진진미 내리시니, 감격도 하지만은 도리어 분촌(分寸)의 공 없음이 부끄럽다. 하물며 궁에서 빛은 술 님의 향기 떠었는데, 금 술잔에 가득 부으니 이 기쁨 미칠 것만 같구나. 이가 호위하고 돌아갈 기일이 멀지 않건만, 쌍궐(雙闕)을 바라보고자 높은 봉에 올라 본다. 신정(神井)에 새긴 빗돌 : 이숙함의 시에, “세조 당년에 이곳에 임행하니, 행전(行殿) 뜰 한가운데 신정(神井)이 솟아났다. 호종했던 신하의 그재에 진정 당대 제일이라, 성덕 칭송한 웅건(雄建)한 그 문사(文詞)를 한 붓으로 휘둘렀다네. 돌에 새긴 그 글자가 이제 벌써 깎이우고 떨어져 나갔으니, 20년의 광음이 한 순간임에 놀랐느라, 자성(慈聖)께서 이를 측은히 생각하시고 중건하라 명하시니, 뒷날에 흘러 전하는 건 다시 태사(太史)의 붓대에 빙의(憑依)하리로다.”하였다. ○ 임원준의 시에, “살아서 성조(聖祖)를 뵈은 것은 진실로 만행한 일, 호종했던 그 당시에 이 온정(溫井)에 왔었노라. 찬 샘물 흘런히 두 온탕 사이에 솟아올라, 신에게 기록하라 명하시어 거치른 문구 붓을 달렸었네, 20년이 채 안되어 글자 이미 상하였고, 때 읊기고 세사도 변개되니 일순(一瞬)인생에 함께 놀냈노라. 반짝반짝 한 치의 적은 마음 다시 챙겨 눈물 뿌리면서 돌 다듬어 거듬 필적 실었노라.”하였다. 광덕산(光德山)의 아침 아지랑이 : 이숙함의 시에, “남녘을 바라보니 광덕산이 드높이 비졌는데, 저멀리 새들만이 중천으로 지나는구나. 아침마다 저 아지랑이 뜻이 있어 뜨는 건가. 가늘고 가는 흰 집(紈) 같기도 하고 다시 비단(綺羅) 같기도 하다. 저 아름다운 산속에 삼라(森羅)한 만상(萬象)을 짚신 신고 가서 유상(遊賞)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구나. 어찌하면 화공(畵工)의 손을 빌려 한 폭의 산수도를 그려서, 그대의 고당(高堂) 흰 벽위에 걸어줄가.”하였다. ○ 임원준의 시에, 첩첩이 반공(半空)에 가로질린 산봉우리 천길이나 높아서, 원숭이도 오르기 어렵고 기러기도 넘기 어려운데, 다만 가벼운 아지랑이 절정(絶頂)을 살짝 덮어, 아침이 오면 분연(紛然)한 풍경 만상이 삼라하다. 그 누가 무상(無像)한 것을 유상(有像)하게 하시고. 볼수록 그의 변태(變態) 그윽히 감상

하기에 족하다. 어찌하면 저 연하(烟霞) 속에 사는 승려를 불러서, 함께 지팡이 이끌고 깊숙이 푸른 절벽 위를 탐색해 볼까. 공관(貢串)의 봄 조수(春潮) : 이숙함의 시에, “호서(湖西)의 큰 바다 물결 어찌 그리 도도(滔滔)한가, 해추(海鱗)가 봄조수 보내오니 찬 물결이 일어난다. 남쪽나라 조운(漕運) 배는 많기도 하다. 구름 돛대 만 길이 하늘과 함께 높았어라. 해류(海流) 평온하게 하라고 풍백(風伯)을 단속하고 밤낮을 계교 앓고서 용산강(龍山江) 머리로 향해 간다. 만억(萬億) 자(秭)²⁾를 수송하여 국고를 높이니 우리의 세상 형편도 이미 서주(西周)와 같음을 깨달았노라.” 하였다. ○ 임원준의 시에, “긴 강물 밤낮으로 도도하게 흘러, 천리 길, 만리 길을 넓은 파도속 달려간다. 뇌성을 울리며 눈더미를 몰아치는 듯, 기세 어이 그리 장하냐. 평상시에도 놀란 파랑(波浪)이 하늘과 연하여 출렁댄다네. 호서의 이곳은 물결이 평온타고 불리우는 곳, 남방의 부세를 이곳에서 조운해간다. 그대는 듣지 못하였나, 하늘엔 바람없고 바다에 물결이 일지 않는다는 것, 성덕(聖德)의 감화가 어찌 홀로 서주(西周)만이 장하리.” 하였다. 송령(松嶺)의 찬 물결 : 이숙함의 시에, “온정(溫井) 서쪽 머리에 자그마한 고개, 영성하게 벌여선 소나무들이 구름위를 쓰고 있다. 큰 바람 세차게 불면 푸른 물결이 놀란 듯 일어나고, 그늘진 골짜기에서 음향이 생겨나면 나뭇가지들이 맑은 소리내어 운다. 선계(仙界)의 학(鶴)이 여기 와서 깃들고 있어 냉냉한 그 울음소리 밤마다 낮은 가지서 난다네. 내 한번 그소리 타고가서 진인(真人)을 찾으려나. 상계(上界 天界)의 관부(官府) 길이 설지 않으리라.” 하였다. ○ 임원준의 시에, “사방에 산이 싸고 둘러 동문(洞門)은 작은데, 고개 위에 멀리 서 있는 소나무의 모습 정정(亭亭)도 하다. 서늘한 밤 자연의 음향이란 싫지 않은 법, 10리 밖의 파도소리가 나뭇가지에 울린다. 가늘게 흔들리는 섬세한 잎새는 검푸른 구름이 깃들어 있는 듯, 가볍게 흔드는 버성긴 가지에는 차가운 달이 낮으막이 걸려 있고, 이내 바람자고 풍운(風韻)이 처음으로 고요해 질 양이면, 흥금도 쌀랑해져 시몽(時夢)이 희미하다.” 하였다. 보리 밭 두둑이 이삭 물결 : 이숙함의 시에, “꽃은 자고 버들도 줄어 봄이 한창인데, 일도 없는 저 포곡해(布穀 빠꼭새)는 농사에 힘쓰라고 ‘빠꼭 빠국, 울어댄다. 가을 보리 구름같이 연하여 이삭 물결 일드니, 단비 내려 하룻밤에 푸른 꺼럭이 늘어졌다. 절기 흘러 자리 자리 가을이 또 왔는데, 농부들 먹을 일 생각하고 기쁨이 먼저 가슴에 떨 것이리. 천만 개의 마을마다 조석 연기 일어나니, 태평스런 민간 풍경 춘대(春臺)에 올라 보는 듯 하다” 하였다. ○ 임원준의 시에, “밭보리 푸르고 푸러 생의에 차 있는데, 평지와 산간에 부지런히 지은 것을 농부들은 함께 기뻐한다. 무성한 이삭들 <한대에> 두 이삭씩 달렸으니 높고 낮은 푸른 물결이 몇겹이나 되던가. 일진(一陣) 화풍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만경(萬頃)의 누른구름이 가을을 재촉하네, 우리에게 풍년줄이 이로부터 시작하리니, 햇무리만으로 어찌 노대(魯臺)를 짐치랴.” 하였다.

【비 고】

방 면 읍내(邑內) : 끝이 5리. 동면(東面) : 처음은 5리, 끝이 20리. 서면(西面) : 끝이 10리. 남군내(南郡內) : 처음은 5리 끝은, 10리. 남상(南上) : 처음은 15리, 끝은 20리. 남하(南下)

: 처음이 5리, 끝은 15리. 일북(一北) : 동북쪽으로 처음은 10리, 끝은 20리. 이북(二北) : 처음은 5리, 끝은 10리.

성 지 배방산성(排方山城) : 배방산에 있으며 3천 5백 13척, 우물이 둘.

궁 설 온천행궁 : 온천에 있으며 여러 임금의 머물고 갔던 곳이다.